

# 3년 만에 야외서 만나는 월드뮤직페스티벌

ACC재단, 내달 26~27일  
국내·외 뮤지션 12팀 무대  
워크숍·플리마켓 등 행사도

국내 대표 월드음악축제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3년 만에 대규모 야외축제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재단)은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ACC 아시아문화광장과 예술극장, 5·18민주광장 등에서 '2022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월드뮤직페스티벌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과 실내 공연으로만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는 3년 만에 해외 뮤지션 초

청과 함께 대형 야외무대를 마련해 관객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해외의 정상급 가수 12개팀이 참여한다. 먼저 해외 팀으로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여성 뮤지션 도베 나호르(Dobet Gnahore)와 베네수엘라 출신 넬라(Nella)의 무대가 마련된다. 2010년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이기도 한 도베 나호르는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놀라운 춤과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도베 나호르 공연은 8월 26일 밤 9시다. 2019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넬라는 베네수엘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안달루시안 감성이 섞인 파워풀



글렌체코

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넬라 공연은 8월 27일 밤 10시다.



도베 나호르



넬라

국내 팀으로는 팬텀싱어 시즌3 출연을 계기로 결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린스 중 소리계라

이징 스타와 테너가 결합한 '존노×고영열' (8월 26일 밤 10시), 9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한 한국의 다크트 펑크 밴드 '글렌체코' (8월 27일 밤 9시) 등 10개 팀이 한 여름밤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함께 5·18민주광장에서는 공모로 선정된 밴드 8개 팀의 지역협력공연이 펼쳐지고, 관객참여 워크숍, 플리마켓 등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줄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이에 앞서 ACC재단은 지난 16일 75명으로 구성된 월드뮤직페스티벌 자원활동가 '월페반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허윤정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남아있어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하지만 국내 아티스트들이 창의적 협업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의 야외공연은 모두 무료이며, ACC판(남도레거시, 이자람) 실내공연은 유료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1992년 8월 1일 당시 미술관 개관식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 광주시립미술관 30년 역사 한눈에

### 사진·영상·문서 아카이브 전시

광주시립미술관의 3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아카이브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다. 전시는 1992년 미술관 개관 시기부터 2021년 최근의 자료까지 미술관의 30년 역사를 연혁, 전시, 교육, 창작지원, 분관 등의 5개 활동 분야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시기부터 지난해까지 미술관의 역사와 관련한 사진, 영상, 문서 등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상을 만날 수 있다.

또 전국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2009년 문을 연 이후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북경작자센터 798, 지역 작가들의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마련한 서울 인사동 G&J갤러리, 하정웅미술관, 비엔날레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션을 실행하는 GMAP 등 광주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전시공간과 본관의 어린이미술관, 문화센터,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사진이 전시된다. 그밖에 각종 문화예술강좌, '남도미술부리전', '지역미술 아카이브전' 등 지역 미술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미술관이 의욕적으로 개최했던 다양한 기획전 자료도 만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 관객이 주인공...삶의 흔적 예술로 승화

### 김찬경 '치유의 음악정원'

### 30일까지 예술공간 집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끔은 그 멸망하기 위로가 되는 신기함도 있다.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진행 중인 김찬경 작가의 '치유의 음악정원'이다. 김 작가는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트라이앵글 가족의 희망 변주곡'으로 광주비엔날레 시민작가로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었다. 작가는 예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미술과 음악은 한데 어우러지며 그간 음악가로서 관객과의 교감에서 나아가 더 큰 예술세계로의 전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간의 활동을 더욱 심화한 세계로 보여준다. 예술은 내면의 성숙한 울림이 되고 삶의 흔적이며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알약이 되리라는 신념에서 시작했다. 작가는 그림과 미디어 영상 등 음악과 그림,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상 작품의 경우 대학에서 미디어영상을 전공한 자녀의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전시장에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해 공연도 열린다. 김찬경 작가는 "삶의 시간 시간 음악가의 몸으로 미술을 입고 흔을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참 행복했다"며 "이번 전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전문예술인 선정으로 이뤄졌다. 전시는 30일까지 열린다. /이나라 기자



김찬경 '6월 열정을 위하여\_바이올린'

### 글로벌 한국학 포럼, 서울 개최 내달 4일...26개국 100명 참여

세계 26개국 100여 명의 한국학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에 모여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은 오는 8월 4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창립 30주

년 기념 '글로벌 한국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한국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30년간 지역·분야별 한국학의 주요 성과와 패러다임 변화를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워싱턴대, 미시간대, 베를린자유대, 베이징대, 게이오대 등 해외 주요 대학의 한국학센터 소장들과 한국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특히 '해외 한국학의 대부'로 불리는 존 던컨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명예교수를 비롯해 로알드 말리앙카 이 호주 국립대 교수, 바바라 발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최진희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박지민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교수, 유영주 미국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은 방한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가자는 포럼에 접속해 의견을 개진한다. /연철뉴스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 기능성 속옷의 名家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래깅스+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루디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흔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